

5·18, 아시아 민주·인권운동 이끈다 ... '광주 정신' 전도사들

언론통제 속 '反탁신' 기사 올려

③ 태국 '프라차타이' 기자 핀파카 낭숨씨

"5·18 민주항쟁은 광주 시민들의 희생으로 일궈낸 고귀한 민주화 운동의 결실입니다. 이는 태국은 물론, 민주화와 인권 신장에 목마른 아시아인들 모두가 분발해야 할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모든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실고 있다. 광주에서 배운 '민주화운동'의 과정을 이곳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낭숨씨는 "광주시민들이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흔쾌히 몸을 던졌다는 것을 알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특히 인권화해 재학 당시 어린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연극을 만들어 거리 공연을 하는 것을 보고 광주의 미래를 보았다"며 "이



12일 핀파카 낭숨씨가 태국 방콕의 중심지인 수쿰빗 소이에서 5·18 광주 민주항쟁이 아시아 민주화 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년 값진 결과인 만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태국은 겉으로 보기에 어느 정도 민주화를 이룬 것 같지만 정부의 인권침해 등이 여전하다"며 "광주에서 배운 민주화 운동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불만을 지니던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점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이고 시민들의 낙선 운동이나 과거 청산 논의 등도 훌륭한 사례가 되고 있다. 더 많은 배움을 얻고 싶다"고 말했다.

/태국 방콕=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2006 2인권학교 때 5·18공연 감동

태국 민주화에 광주 정신 점목 앞장

전도사'로 명성이 높다. 지난 2006년 '광주 아시아 인권학교' 수료 이후 태국의 민주화에 '광주 정신'을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낭숨씨는 현재 방콕에서 민주·인권단체인 '프라차타이(Prachatai)'에서 기자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는 '프라차타이' 웹사이트 자유 게시판에 운영하면서 탁신 시나왓(Thaksin Shinawatra·60) 전 총리에 대한 찬반 게시글을 모두 올리고 있다.

태국의 민주화를 위해 두려움을 물리치고 자신있게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5·18 민주항쟁 29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우연한 계기로 27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 광주 시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마련한 '주먹밥 만들기 행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5월의 아픈 기억을 하더라도 빼놓지 않고, 과정과 결과를 모두 담아 하나의 기념행사로 만들었다는 데 감격스럽다"고 부러워했다.

태국 민주화의 현 주소에 대해 그는 한국의 1980년대를 연상케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민주·인권단체에서 일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보고서나 '친탁' 지지자의 글을 게시판에 올렸다가 투옥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5·18 민주항쟁이 시민의 희생으로 일궈

5·18 금남로 모형으로 재현

김동선씨 당시 상황 150분의 1로 제작

1980년 5·18민중항쟁 당시 옛 전남도청과 금남로의 모습이 모형으로 생생하게 재현됐다.



5·18 당시 시민군과 계엄군이 충돌한 금남로 광주관광호텔 앞 거리를 재현한 모형.

실제 공간의 1/150(2m×1.6m)로 축소된 옛 전남도청 앞 거리 모형은 버스나 택시에 탄 시민군이 금남로를 따라 계엄군에게로 향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1/50(1.7m×1.2m)로 축소된 관광호텔 상층 모형은 맨손의 시민군이 끈뭇하게 계엄군과 충돌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재현됐다. 지금은 사라진 전남도청 앞 시계탑과 호텔 일대 삼청들도 당시 모습 그대로 재현됐으며, 3천여 명의 인몰, 100여대의 차량, 100여종의 건물이 정교하게 복원됐다.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 모형은 재료 값만 1억원이 들었지만 수십여 차례 현장 취재와 샘플링 작업 등 부가비용을 합하면 수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조선대 건축공학과 82학번인 김씨는 "조선대에 입학하기 전 재수생 신분으로 5·18을 지켜본 후 내 손으로 이 현장을 기록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다"며 "이 작업만 하는 것도 아닌데다 자료도 부족하고 자금도 부족해서 중간에 그만두기도 했었지만 10년 만에 완성이 돼 기쁘다"고 말했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만들지 못한 건물 등은 번호로 적어 놓고 공개한 뒤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후원만 이뤄진다면 5·18민중항쟁 30주년에 맞춰 좀더 사실적인 1/10 축소 모형 제작에도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광필기자 kps@kwangju.co.kr

니원침 (7801) 김동주



우체국 시청 전화사기 3명 검거

순천경찰은 12일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전화사기를 벌인 중국인 관모(34)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관씨 등은 지난달 20일 광주시 서구 한 호텔에서 순천에 사는 김모(49)씨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가 부정 발급됐다"고 거짓말을 한 뒤 현금지급기로 유인, 3천만원을 계좌이체 받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1억4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30cm 흉기 차고 다니며 강도·공갈

○홀수한 지나 할 만에 7차례나 강도 등을 일삼은 20대가 30cm나 되는 흉기를 허리에 차고 거리를 활보하다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은 12일 박모(23)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박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경 광주시 북구 한 아파트 벤치에서 A(여·27)씨 등 2명을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요구하는 등 최근 7차례에 걸쳐 강도와 공갈 등을 저지른 혐의.

○박씨는 지난 2일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나흘간 범행을 저질렀으며, 항상 허리에 30cm의 흉기를 차고 다니던 중 PC방에 들어갔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종업원의 신고로 범행 일체가 들통. /김형호기자 khh@

고교생 시민군의 5·18 회상기

시민군 참여 임영상씨

'부끄러운 탈출' 떠나

80년 5월 광주민주항쟁 당시 고교생 시민군들의 활약을 담은 책이 나왔다.

당시 고등학교 신분으로 시민군에 참여했던 임영상(48·한국리더십개발 연구위원·사진)씨가 낸 '부끄러운 탈출'(푸른미디어 펴냄)은 당시 서석고 3학년이었던 임씨가 최초 시위에 가담했던 1980년 5월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고교생 시민군의 5·18회상기'라는 부제를 단 이 책에서 임씨는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여태껏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의미 있는 사실들도 찾아냈다.

우선 도청 진입 후 진입군이 었던 표



정으로 교련복을 입은 고등학생을 향해 총을 겨누는 사진(당시 동아일보 사진기자였던 김병만씨 촬영) 속 고등학교

생이 저자의 중학교 동창인 윤영철(인천 부평 거주)씨임을 밝혀냈다.

임씨는 "고교생 시민군들이 작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으로 추정되고 활약 또한 컸음에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며 "이름 없는 고교생 시민군들의 활약을 세상에 널리 알려 5·18 평가에 이바지해야겠다는 일념 새벽까지 7일간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책은 또 5·18관련 사진과 1980년대 전후 역사적 사진들을 도문말과 함께 곁들였고, 부록에선 5·18 사적 경험뿐만 아니라 여태껏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의미 있는 사실들도 찾아냈다. /김대성기자 bigkim@

'친탁' '반탁' 쟁개진 태국

탁신 전 수상 '反애국 행각' ... 저소득층 친탁·중상류층 반탁 대립

태국 국민이 둘로 나뉘고 있다. 지난 1932년 절대 왕정에서 입헌 왕정으로 대체된 이후 처음이다. 문제의 발단은 탁신 전 수상 일가가 지난 2006년 1월 전 코퍼레이트의 주식을 싱가포르 국영회사에 편입 매각하면서 19억달러의 이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환분도 내지 않는

'반애국적 행각'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탁신 전 수상은 정권 획득과정에서 농민 채무상환 유예, 마을당 1백만 바트(한화 3천600만원)의 개발 기금 할당, 기초 의료개발제도 도입 등으로 저소득층에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상류층과는 적대관계에

있다. 탁신은 수상직 사임의사를 밝혔으나 이를 번복하고 같은 해 10월 선거에 출마했다. 자신의 표밭인 농촌지역 등 저소득층의 지지를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곧 군사쿠데타로 이어졌고, '친탁(저소득층)과 반탁(중상류층)'으로 나뉘게 됐다.

특히 현 태국 정부는 국영의 절대 권력을 따르는 반탁 성향이 강하다. 최근 농촌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달 수입이 1만5천 바트(한화 54만원) 이하인 반탁 성향의 주민에게 2천 바트(한화 7만2천원)씩 나눠주고 친탁 주민에게만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이처럼 태국 정국은 둘로 나뉘어 점점 혼미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현지어로 '자유의 나라'란 뜻의 태국(Thailand), 하지만 '쿠데타'가 반복되고 있는 나라. 태국은 현재 '자유'를 향한 힘겨운 행진을 하고 있다. /태국 방콕=이종형기자 galee@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Real estate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 and property listings.

상조 (good neighbor) advertisement for funeral services. Includes text about 18 years of tradition and contact information.